

통신서비스 과금 및 정산원칙 관련 ITU-T Study Group 3 주요논의 검토

강신원 * 박혜진 * *

표준이 기업이나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척도의 하나로 인식되어 세계 각국이 자국에 유리한 국제표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 논의 이슈 및 논의방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본고는 2005년 1월 24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ITU-T SG3 회의내용을 중심으로 국제표준화 관련 주요 논의 이슈를 검토해 보았다. SG3은 전 세계 60여개국에서 150여명의 국가대표들이 참석하는 ITU-T 내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기구 등에 걸쳐서도 전기통신 및 정보통신 분야의 국제 요금정산 및 과금 원칙을 논의·결정하는 유일한 그룹으로서 국제적인 대표성과 민감성이 매우 크다. 2005년 1월 회의는 2005~2008년 회기의 첫 번째 회의로서 NGN 관련 논의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으며 이는 향후 SG3의 주요 연구 테마로 인식되었다. 한편, NGN 과금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전문가가 기고서를 발표하고 라포취로 선임되는 등 NGN 이슈를 리드할 발판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발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한 적극적 모색이 요구된다.

I. 서론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설립목적은 모든 종류의 정보통신을 개선하고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정보통신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이용을 확대하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혜택을 확대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ITU는 1932년 국제전기통신연합으로 출발하여, 1947년에는 전기통신, 전파통신, 위성통신, 방송분야를 총괄하는 UN(United Nations)의 전문기구로 위상을 정립하였다.

ITU는 전파통신부문(ITU-R), 정보통신개발 부문(ITU-D), 전기통신부문(ITU-T)의 3부분으로 나누어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ITU-R은 세계/지역전파통신회의, 비상근 전파규칙위원회, 전파통신총회와 산하연구반 및 자문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TU-D는 세계/지역 정보통신 개발회의와 산하연구반 및 자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ITU-T는 세계 전기통신 표준화 회의 아래에 전기통신표준화국, 산하연구반 및 자문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전기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에서 표준화 대상들을 다루고 있다[1].¹⁾

한편, 본고에서 다루는 Study Group 3 (이하 SG3)은 ITU-T 산하 연구그룹이며 통신관

* ETRI 모바일서비스전략연구팀, 선임연구원

* * ETRI 모바일서비스전략연구팀, 연구원

1) ITU-T는 전기통신 서비스에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ITU-T의 Study Group의 연구분야는 다음과 같다. SG 2 (통신망 및 서비스 운용), SG 3 (요금 및 정산원칙), SG 4 (통신관리), SG 5 (전자기적 영향으로부터의 통신설비 보호), SG 6 (옥외설비), SG 9 (광대역 케이블 네트워크 및 TV 음성신호전송), SG 11 (신호방식 요건 및 규약), SG 12 (성능 및 서비스 품질), SG 13 (NGN: Next Generation Network), SG 15 (광 및 기타 전송 네트워크 인프라), SG 16 (멀티미디어 터미널 시스템 및 응용), SG 17 (보안, 언어 및 통신 소프트웨어), SG 19 (무선 통신네트워크) 등이다 (ITU-T 홈페이지, <http://www.itu.int/ITU-T/studygroups/index.html> 참조).

런 기술표준을 대상으로 하는 SG와는 다르게 정보통신 요금, 정산원칙, 통신경제 및 규제정책 등을 표준화 대상으로 하고 있다[2].

SG3은 2005년 1월 새로운 조직과 연구과제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다음 회의부터 정부 및 사업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NGN (Next Generation Network), International Internet Connectivity, Internet Traffic Flow Methodology, IP Telephony, IMT 2000, Mobile Termination, International Roaming Tariff, Leased Line, Transit Tariff, Dispute on Charging Duration, Network Externalities, Call ITR 등과 관련된 통신서비스의 과금 및 정산원칙 뿐만 아니라 통신경제와 정책 이슈 등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3].

주시하듯이 표준은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의 중요한 척도의 하나로 인식되어 세계 각국이 자국에 유리한 국제표준을 위하여 많은 노력 및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 논의 이슈 및 논의방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2005년 1월 24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ITU-T SG3 회의내용을 중심으로 국제표준화 관련 주요 논의 이슈를 검토해 보았다.

II. ITU-T Study Group 3 및 산하작업반의 역할

1. SG3의 연구범위

SG3은 ITU의 연구그룹 가운데 유일한 비기술분야의 연구위원회로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제도 등의 규제 관련사항과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일반 요금원칙을 비롯한 요금원칙, 국가 간의 정산원칙, 통신경제 및 정책에 대한 연구와 권고를 작성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현재 SG3의 기능은 과금 및 정산원칙 부문과 함께 본격적인 정보통신시대의 도래와 이들 서비스의 국제화에 따른 글로벌통신망의 구축, WTO 체제하에서의 통신서비스의 무역상품화로 국제 정보통신 서비스의 이용제도, 규제제도, 요금 및 정산원칙 부문으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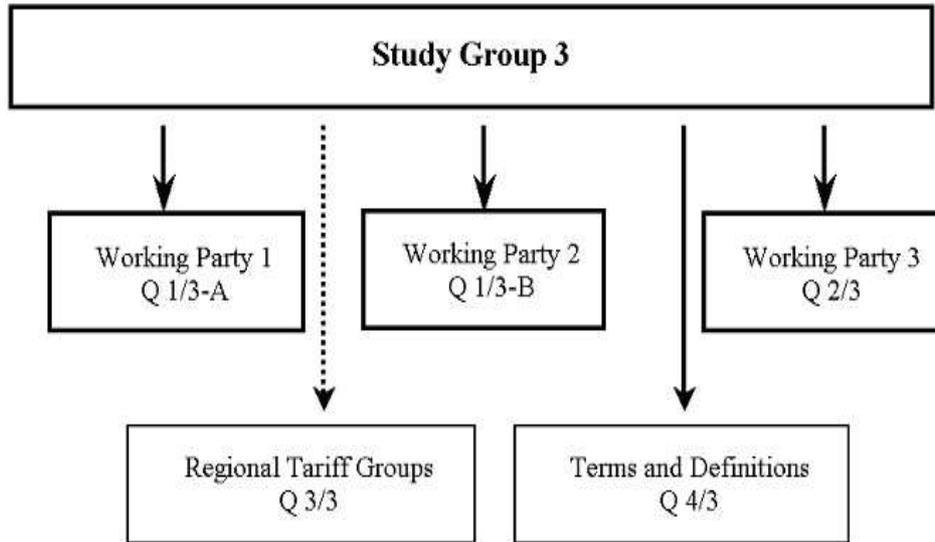
<표 1> SG3의 연구과제(2005-2008)

연구과제 (Question)	제목
1/3	o 국제통신서비스의 과금 및 회계원칙 개발
2/3	o 국제통신서비스의 효율적 제공과 관련된 통신경제 및 정책요소 연구
3/3	o 통신경제 및 정책이슈와 관련된 비용모델개발을 위한 지역연구
4/3	o 과금 및 회계원칙과 관련된 권고 안의 용어와 정의

자료: ITU-T SG3 홈 페이지[1]

2005~2008 회기 중 SG3의 연구과제는 총4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신경제 및 정책이슈를 포함한 요금, 회계 및 국가 간 정산원칙을 표준화 대상/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 연구과제의 세부연구분야는 2005년 1월에 개최된 회의에서 논의되었다(본문 3 참조).

<표 2> SG3의 하부조직 구조(2005-2008)



자료: ITU-T SG3 홈 페이지[1]

<표 3> SG3의 산하작업반의 연구과제 내용(2005-2008)

연구과제 (Question)	연구내용
Working Party 1/3 - 새로운 통신서비스와 네트워크 성능과 관련된 과금 원칙 연구	
1/3-A	o 새로운 기술의 진보로 인하여 가능하게되는 국제통신서비스의 과금 및 회계 원칙 개발
Working Party 2/3 - 전통적 통신서비스의 과금 및 회계 원칙	
1/3-B	o 전통적 통신서비스를 중심으로 국제통신서비스의 과금 및 회계 원칙 개발
Working Party 3/3 - 국제통신서비스의 통신경제 및 정책 요소 연구	
2/3	o 효율적인 국제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관련 통신경제 및 정책 요소 연구
Regional Tariff Group - TAS, TAF, TAL, TEUREM	
3/3	o 통신경제 및 정책이슈와 관련된 비용모델개발을 위한 지역연구
Rapporteur Group on Term and Definitions	
4/3	o 과금 및 회계 원칙과 관련된 권고 안의 용어와 정의 연구

자료: ITU-T SG3 홈 페이지[1]

2. SG3 구조 및 산하작업반의 역할

2005 ~ 2008 회기의 SG 3의 조직구조는 Working Party(이하 WP) 3개와 Terms and Definition 라포취 그룹 및 3개의 Regional Tariff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본문 3 참조). 담당과제를 살펴보면, WP1은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요금관련 표준을 담당하고, WP2는 기존 통신서비스의 요금표준을, WP3은 국제통신서비스를 위한 통신경제 및 정책을, Terms and Definition 라포취 그룹은 SG3과 관련된 용어정의 및 번역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Regional Tariff 그룹은 통신서비스의 비용모델을 위한 지역연구를 담당하기로 되어 있다[4][5].

III. 2005년 1월 회의 주요논의 내용

1. 개최 및 폐회에서의 주요 내용

1) 개최 총회

SG3은 Mr. 박기식 의장이 주재하고, Mr. Blausten, Mr. Foldvari, Mr. Kushtuev, Mr. Ndaro, Mr. Thomas, Mr. Tsugawa 등 부의장의 협조 하에 2005년 1월 24일 부터 2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ITU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본 회의는 지난 WTSA-2004(Florionopolis, Brazil, 2004.10) 이후 2005 ~ 2008 회기의 첫 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이번 회의의 주요 내용으로 새로운 회기의 작업을 담당할 SG3 하부 조직 구성과 각 조직 의장단 선출 및 업무 할당이 이루어졌다.²⁾

동 회기 동안 활동할 SG3의 조직구조는 WP3개와 Terms and Definition 라포취 그룹 및 3개의 Regional Tariff 그룹으로 구성되었다. 작업반과 관련하여 WP1은 NGN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의 요금관련 표준을 담당하고, WP2는 PSTN, Mobile 등과 같은 기존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담당하며, WP3은 효율적인 국제 통신서비스를 위한 경제 및 정책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Terms and Definition 라포취 그룹은 SG3에 관련된 모든 용어 정의를 회원국에서 요청한 6개국으로 번역하고 통일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Regional Tariff Group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담당하는 TAL, 아시아/오세아니아를 담당하는 TAS 및 아프리카를 담당하는 TAF로 구성하였다.

SG3에 부여된 총 4개의 연구과제(Question) 중 Q1/3을 두 개로 나뉘어서 Q1/3 A는 WP1에 Q1/3B는 WP2에 Q2는 WP3, Q3은 WP4로 할당하였다. 즉, Q1 A는 New Telecommunication service를 위한 Charging, Accounting, and Billing 이슈를, Q1 B는 Traditional Telecommunication service를 위한 Charging, Accounting, and Billing 이슈를, Q2는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service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Economic and Policy Factors에 대한 이슈를 다루기로 하였다[4].

2) 세계정보통신표준총회(WTSA-2004)는 4년마다 개최되고 ITU-T 연구반 조직 및 작업 방법 결정, 차기 의장단 선출, 집행 예산 보고 및 차기 계획 예산 승인 등 표준의 틀을 세우는 역할을 담당하며 향후 4년 간의 ITU-T 활동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의이다.

2) 폐회 총회

WP3, 2, 1, Terms and Definition 라포취 그룹, 각 Regional Group의 순서로 보고를 진행하였다. WP3, 2, Terms and Definition은 큰 이슈 없이 비교적 간단히 보고를 완료하였으나 WP1은 SG3에서 가장 논쟁의 대상이 되는 주요한 안건을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폐회 총회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당하여 각 섹션별로 상세하게 다루었다.

특히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NGN의 경우 이번 회기의 가장 핵심 연구항목이 될 예정이어서 회원국간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었으며 결과적으로 NGN Charging and Tariff 이슈를 다룰 라포취 그룹이 결성되었다.³⁾

2. 회의 주요 결과

1) Working Party 1의 주요 회의결과

본 WP는 25일 오전에 첫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월 26일 오후에 두 번째 회의를 하였으나 기상이변으로 회의가 중단되어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27일 1시30분부터 1시간 특별 임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P Telephony와 관련한 이슈를 위해 Ms. Marilyn Cade, USA가 이끄는 라포취그룹이 지난 회의때 결성되어 활동 중이다. 먼저 라포취는 지난 회의 이후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였고, 본 이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IP Telephony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는 SG2(통신망 및 서비스 운용)와의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 가기로 결정하였으며,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e-mail 리스트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차기 회의까지 진행하도록 하여 회원국들의 충분한 기고가 있을 경우 차기 회의 바로 전 주에 중간 라포취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의장으로부터 보다 명확한 연구활동 관련 마일스톤을 정의하고 활동결과를 차기 회의에서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IMT-2000과 관련하여 Mr. Leslie Martinkovics (USA)가 이끄는 라포취그룹이 지난 회의에서 결성되어 활동 중이며, 그 동안의 활동 중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IMT-2000은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Service가 아니라 technical operational platform으로 정의하였다. 둘째, IMT-2000 관련 권고 안을 제정할 경우 중복 성을 점검하며, 셋째, IMT-2000의 현재 implementation 상황을 분석한 결과 신규 권고 안의 작성 필요 없으며 대신 기존의 D-시리즈 권고 안의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⁴⁾

International Internet Connectivity 이슈는 지난 회기 동안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이

3) NGN은 통합망을 지향한다. 즉, PSTN망, ATM망, 그리고 이동망 등이 궁극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되어 모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4) ITU-T 표준은 표준화 대상분야를 알파벳으로 그룹을 정하고, 시리즈로 번호를 부여한다. D 시리즈 권고안은 일반 관세 규칙에 관한 것이다.

슈였고 본 회기 동안에도 활동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난 회의때 D.50 권고안 (International Internet Connection)의 내용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라포취로는 유럽 EC에서하기로 결정하였다.

Internet Traffic Flow Methodology 이슈도 지난 회기 동안 IIC 이슈와 함께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이슈였으며 본 회기 동안에도 활동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회기에 이어 중국에서 라포취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Mobile Access - Home Country Direct (HCD) and IFS 이슈에 관해서 신규 기고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본 회기 동안에도 Living list에 남겨두기로 결정하였다.

Methodology for IPDR (IP Detail Record)와 Enhanced Signaling 이슈는 더 이상 Working Party 1에서 다루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IPDR.org와의 공식적인 liaison 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SMS/MMS와 Multimedia 이슈에 대한 기고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본 Working Party 1의 active list에 남겨두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Multimedia 정의에 대한 논쟁과 동 이슈는 NGN 범위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으나 일단 현 상태로 두기로 결정을 하였다.

NGN 이슈는 가장 장시간의 논쟁이 이루어진 분야로 한국에서 2개의 기고서 (D 11, D 12)가 발표되었다.⁵⁾ 먼저 D12에 대해 김철수 교수의 발표가 있었으며, 발표는 D 12의 부록으로 제출한 발표자료를 중심으로 NGN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Charging 이슈에 대해 일부 언급하였다. 주요 제안내용으로는 NGN charging 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Question 이 생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발표 후 미국 측으로부터 charging factor를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였는지 와 왜 현재의 모델과 방식이 불충분한지를 설명할 것을 요청 받았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차기 회의에 기고서로 제출하기로 답변하였다.

두 번째 기고서인 D 11은 최태상 박사(한국)가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동 회기에서 NGN 관련 Charging model에 대한 연구를 위한 항목 및 필요할 경우 새로운 권고 안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였다. 발표 후 D 12와 비슷한 질문이 나왔으며 본 기고서에서 제안한 연구 항목 중 NGN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ITU-T SG간에 명확히 일치하지 않은 상황이며, 이의 정의를 위한 SG2와의 협력이 필요함을 언급되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 이상 기후로 인해 회의가 갑자기 종료되었으며 다음날 임시회의에서 계속 진행하였다.

1월 27일(목요일) 임시 회의에서는 기고서 발표 및 SG 13의 liaison 문서 설명 등을 바탕으로 Working Party 1의 NGN work plan과 SG13에 보낼 liaison 문서를 작성되었다. 결정된 주요 항목으로 기존의 SG3의 모든 D series 권고 안을 분석하여 NGN 서비스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사전조사와 NGN 서비스 정의를 위해 SG2 및 SG13과 협력할 것 등 두 가지이다. 또한 liaison 문서에는 SG13에서 요청한 참고문헌의 응답으로 사전 조사 이후

5) D. 11 (Proposal for study items related with NGN tariffing and accounting in SG3)은 NGN을 위한 charging 모델 요구사항 및 연구항목을 표준화하기 위한 권고 안을 신규로 시작자는 제안 내용을 담고 있다. D. 12 (NGN Charging Issues)는 NGN을 charging 이슈를 정리하고 관련 표준화를 위한 새로운 Question을 생성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5년 1월 회의에서 두 기고서는 모두 Working Party 1에서 발표되었고 그 결과 NGN 라포취그룹을 조직되었으며 신규 연구 항목과 SG13(NGN)에 보낼 liaison 문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반영되었다.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본 회의 중 제기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러한 Working plan을 시행할 조직으로 라포취그룹을 결성하자는 제안들이 우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호주 및 영국의 반대로 e-mail Reflector를 운영하는 형태로 일단 결정되었다. 이 부분은 여러 형태의 내부적인 조율을 통해 폐회 총회에서 라포취 그룹을 결성하는 형태로 최종 조정되었다.

Liaison Issues와 관련하여 먼저 SG13에서 SG3으로 보내온 NGN Charging, Accounting, and Billing 관련 liaison 내용의 설명을 위해 SG13의 담당 라포취가 회의에 참석하여 NGN Focus Group 및 SG13의 NGN의 현재까지의 활동내용을 소개하였으며, SG13에서 현재 진행 중에 발생한 협조 사항을 정리한 liaison 문서를 소개하였다. WP1에서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SG13에 보낼 liaison 문서를 작성하였고 새롭게 구성된 라포취 그룹에서 이를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2) Working Party 2의 주요 회의결과

모바일 착신 요금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와 일본 기고서가 발표되었고, 각 국이 착신 요금체계 및 환경이 다르므로 향후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보다 정확한 연구를 수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라포취와 코-라포취가 선임되었다. 동 이슈에 대하여 Reflect Group이 만들어지며, 라포취 그룹은 다음회기에 모바일 착신 요금 관련 Questionnaire 초안을 포함 기고서를 발표하기로 하였다.

권고 안 개정 D.150 (New system for accounting in international telephony)이 이의 없이 개정이 승인되었고, 권고 안 D.195 (Time-scale for settlement of accounts for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services) 관련하여 로스텔레콤은 국제통신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정산절차를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Daniel Odegov(Rostelecom)가 라포취로 선임되었다. 권고 안 D.4 (Special conditions for the lease of international (continental and intercontinental) sound-and television-programme circuits for private service)와 D.180 (Occasional provision of circuits for international sound- and television-programme transmissions) 관련하여 일본에 의하여 개정이 제안되었으며, 호주의 코멘트에 의한 약간의 수정 후 개정이 승인되었다.

E.164 국가코드 공유와 관련하여 INMARSAT은 UN이 관할하는 재해지역에 새로운 국가번호 부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제안된 개정안이 승인되었다[6].⁶⁾

전용선과 관련하여 INTUG은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기 위하여, 가격인하를 위한 전용선에 대한 경쟁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논의 결과 동 기고서는 관련 정보로만 이용하기로 하였다[7].⁷⁾

6) E.164 국가코드는 UN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할당되어 있다. INMARSAT의 주장은 이러한 국가코드를 특별재난지역에 할당하여 사용가능 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INMARSAT, Charging and Accounting for shared E.164 country code, ITU-T SG3 COM-3D5-E, 2005.1.).

국제 모바일 로밍 이슈와 관련하여 INTUG은 현재 국제 글로벌 로밍의 요금이 높으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용요금의 하락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으며, 의장은 동 기고서가 특별한 주장이 없으므로 동 기고서는 승인 없이 관련정보로 이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만일 기고서로 인정되기를 원한다면 다음회기에 기고서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8].⁸⁾

작업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TD 14에 향후 가능한 연구항목이 리스트 되어 있으며, 필요에 의하여 연구 항목은 추가될 것이다.⁹⁾ 한편 Working Party 2의 이름은 “Charging, Accounting and Settlement of Traditional Telecommunication Services”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3) Working Party 3의 주요 회의결과

기고서 승인과 관련하여 TD 21은 약간의 수정이후 승인되었으며, 2004년 6월 회의에서 논의된 작업반 활동 관련 COM 3 R 22는 수정 없이 개정안이 승인되었다.¹⁰⁾

네트워크 외부성과 관련하여 Dr. W. New는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네트워크 외부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한다면 소비자후생 및 생산자후생이 증대되어 사회후생도 증가된다고 언급하였다. Dr. W. New는 라포취 그룹의 의장으로 Mr. V. Affleck(영국)은 코-라포취로서 연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대체통화 절차와 관련하여 TD 9와 D4가 논의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와 논의를 위하여 케냐를 의장으로한 소규모 초안작성 그룹을 만들었다. 요르단텔레콤을 의장으로 한 라포취 그룹은 INTUG, UK, USA, Kenya 등이 지원키로 하였다.¹¹⁾

국제통신규정(ITRs)과 관련하여 TD 12와 D8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며, 조만간 열리는 IPRs 관련 Council Working Group의 권고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이와 관련하여 보고할 레이송으로 선임되었으며, 또한 미국은 그룹의 의장으로, 쿠바와 가봉은 코-라포취로 선임하였다.¹²⁾

4) 용어정의 특별그룹(Terms and Definitions Group)

ITU T의 새로운 결의안에 입각하여 6개국언어를 대표하는 용어정의 특별 라포취 그룹이 구성되었다. 기존 3개국어에서 새롭게 아랍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이 추가되었다.

한편, Reflector를 이용한 “cost oriented and cost based” 관련 용어에 대한 연구를 지

7) INTUG, Leased lines, ITU-T SG3 COM-3-D6-E, 2005.1.

8) INTUG, International mobile roaming, ITU-T SG3 COM-3-D7-E, 2005.1.

9) Kishik Park, Review of the Questions assigned, ITU-T SG3 TD14(PLEN)-E, 2005.1.

10) TD21은 draft agenda for the meeting of Working Party 3/3이다.

11) TD9 (“Major decisions of the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 (Florianopolis, 5-14 October 2004)”)은 2004년 10월에 개최된 WTSA의 회의결과를 담고 있다.

12) TD8 (“Extracts of the report of the third meeting of ITU-D Study Group 1”)은 2004년 9월 개최된 ITU-D SG1의 회의결과를 담고 있다.

속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D-series 권고안 중 요약부분이 없는 경우 라포취 Mr. Shin-Won Kang에게 보내고 완성된 요약은 용어정의 특별그룹이 리뷰한 이후 TSB가 번역후 승인을 위하여 WP 2에 제출할 하며, 단 요약을 지원하고자하는 라포취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이 결정하였다[9].¹³⁾

3. 차기회의 일정

ITU-T SG3의 다음회의는 2005년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ITU본부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NGN, International Internet connectivity, Internet Traffic Flow Methodology, IP Telephony, IMT 2000, Mobile Termination, International Roaming Tariff, Leased Line, Transit Tariff, Dispute on Charging Duration 등 과금 이슈 및 Network Externalities, Call ITR 등 정책 이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IV. 결론

정부는 표준이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의 중요한 척도로 인식하고 유리한 국제표준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국제표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논의되는 주요이슈의 검토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2005년 1월 24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SG3 회의내용을 중심으로 표준화 관련 주요 논의 이슈에 대하여 검토해보았다.¹⁴⁾ SG3는 2005년 1월 새로운 조직과 연구과제를 가지고 새로운 회기(2005 ~ 2008)를 시작하였다. SG3는 통신경제 및 정책이슈를 포함한 요금, 회계 및 국가 간 정산원칙을 표준화 대상/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SG3의 2005년 1월 회의에서는 NGN 논의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으며 이는 향후 SG3의 주요 연구 테마로 인식되었다[3].¹⁵⁾ 한편 NGN 과금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전문가가 기고서를 발표하고 라포취로 선임되는 등 향후 NGN 이슈를 리드할 발판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발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13) Rapporteur Group on terms and definitions, Report of the Rapporteur Group on terms and definitions, ITU-T SG3 TD39(PLN)-E/F, 2005.1.

14) SG3은 전 세계 60여개국에서 150여명의 국가대표들이 참석하는 ITU-T 내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기구 등에 걸쳐서도 전기통신 및 정보통신 분야의 국제 요금정산 및 과금 원칙을 논의·결정하는 유일한 그룹으로서 국제적인 대표성과 민감성이 매우 크다. 또한 SG3에서 작성하는 권고안의 내용이 WTO 서비스무역의 일부로 선진통신사업자들의 국제통신시장 진출전략과 기술패권주의를 고려할 때 국제통신부문의 통신사업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통신사업, 정부, 통신이용자들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5) 회의 전반을 통하여 미국 등 일부 전통적인 과금 프레임워크를 고수하고자 하는 세력과 NGN 등 새로운 서비스와 Application의 등장에 따라 새롭게 국제 전기통신(사실상 각종 새로운 정보통신분야 포함) 과금 프레임워크를 구성코자 하는 세력간의 보이지 않는 대립이 있었다.

- [1] ITU-T SG 3, [http://www.itu.int/ITU-T/studygroups /com03/index.asp](http://www.itu.int/ITU-T/studygroups/com03/index.asp)
- [2] Kishik Park, Review of the Questions assigned, ITU-T SG3 TD14(PLEN)-E, 2005.1.
- [3] 박기식, ITU-T SG3 회의 참가 보고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5.2.
- [4] ITU, Preliminary report of Study Group 3 meeting, ITU-T SG3 TD 42(PLEN)-E, 2005.2.
- [5] Kishik Park, Draft organization of work for the 2005-2008 Study Period, ITU-T SG3 COM3-D1-E, 2005.1.
- [6] INMARSAT, Charging and Accounting for shared E.164 country code, ITU-T SG3 COM-3D5-E, 2005.1.
- [7] INTUG, Leased lines, ITU-T SG3 COM-3-D6-E, 2005.1.
- [8] INTUG, International mobile roaming, ITU-T SG3 COM-3-D7-E, 2005.1.
- [9] Rapporteur Group on terms and definitions, Report of the Rapporteur Group on terms and definitions, ITU-T SG3 TD39(PLEN)-E/F, 2005.1.